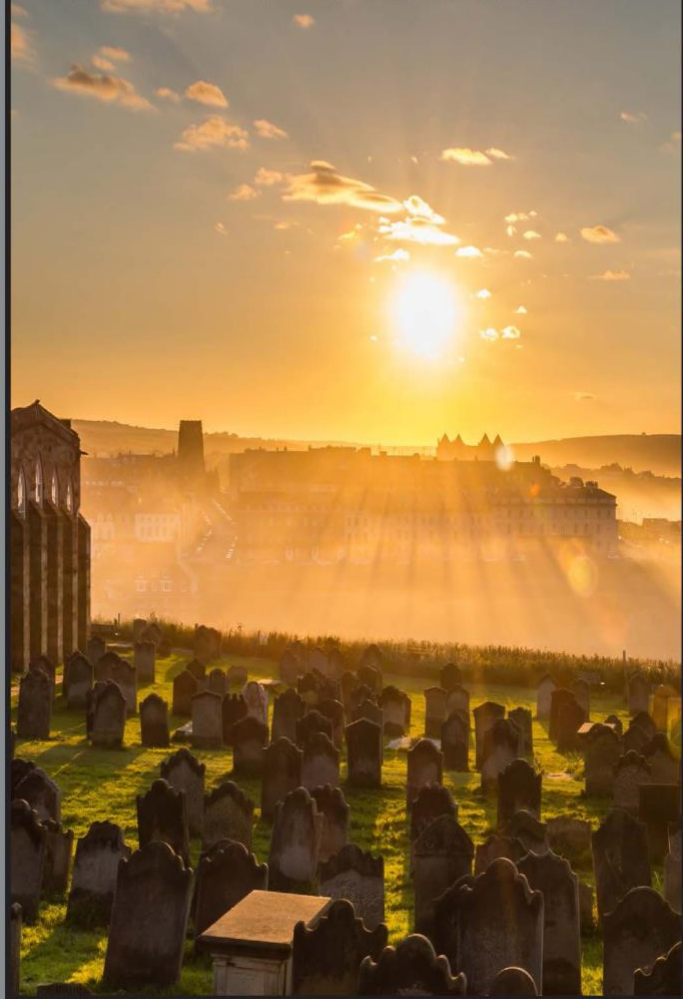


# 무덤 너머의 희망



# 무덤 너머의 희망

## 제1장

###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원 중에서 오직 성경만이 이 무시무시한 괴물에게 쓰러진 사람들의 미래에 관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죽음이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며, 나아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4; 요한복음 5:28, 29).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창조주가 마련해 주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사랑하는 죽은 이를 애도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 그 자체의 끔찍한 유령에 더해, 무덤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죽음 직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친구들이 모여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동안, 그 사람은 어떤 신비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서 장례식장 주변을 맴돌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어딘가의 아름다운 섬”으로 떠났을까요? 혹은, 고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불과 유향의 지옥에서 영원한 고문을 당하며 고통받게 될 운명에 처한 전통적인 저주받은 자들의 영역에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적어도 세상을 떠난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 중 다수가 선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해했던 대로 기독교를 신실하게 믿었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에 따르면 지금 천국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정통적인 신앙과 실천의 범위를 벗어나 세상을 떠난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아마도 친척들도 있었기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할까?

## **과학은 희망을 주지 않는다**

과학은 죽음이 닥쳤을 때 인간의 생명이 지속된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한다. 이 시대가 물질주의의 시대인 만큼, 많은 이들이 이 견해를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주장하는 바는, 생명

원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하등 동물과 다르지 않으며, 인간 종의 높은 지능은 인간이 ‘영혼’이나 ‘영’이라 불리는 별개의 지성을 내면에 숨기고 있다는 전통적인 이론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들보다 더 우월하고 정교한 유기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죽은 자의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과학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알거니와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시편 49편 10-12절도 요점을 잘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와 같이 결국 죽을 것이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뒤에 남겨두리라.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이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따서 영지를 지을지라도, 그들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본래 완전했던 이 부부가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은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하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9). 시편 146편 4절에서 다윗은 흙으로 돌아가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 땅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모든 계획은 그들과 함께 사라진다.” 언어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이 죽은 사람을 의식이 없고 모든 생각이 사라진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한 이 말을 다시 주목해 보라.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 흙으로 돌아간다.” 만약 인간이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서, 육체와 생명의 숨이 결합되어 존재하게 되었다면, 이 두 요소가 분리될 때 생명이 멈출 것이라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바이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그들과 함께 죽는다.”

어떤 이들은 “생명의 숨”에 대해 의문을 품을지 모르는데, 어쩌면 이것이 육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남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며, 신성한 창조적 지혜가 인간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결합시킨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티끌은 본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12:7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는 육체와 영 모두에 대해 사용된 “돌아가다”라는 단어에 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이는 육체의 구성 요소들이 원래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면, 여기서 언급된 ‘영’이 영적인 천국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라면, 우리 각자는 태어나기 전에 그 영적인 천국에 있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영”의 진정한 정체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ruach)’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분야의 저명한 권위자인 스트롱 교수는 이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가 ‘바람’ 또는 ‘숨’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창세기 7장 15절에서 하등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된, ‘숨’으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음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숨[루아흐]이 있는 모든 생물의 한 쌍이 노아에게 와서 방주에 들어갔다.” 만약 인간의 생명의 숨이나 영을 묘사하는 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육체가 죽은 후에도 계속 살아가는 일종의 지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하등 동물들도 본질적으로 결코 죽지 않는 유사한 무형의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고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선언합니다. 몸과 생명의 숨이 결합된 결과는 “사람이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몸이 흠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숨이나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과 같은 상태, 즉 존재하지 않던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해결하려면 전도서 3:19-21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곳에서도 히브리어 ‘루아흐(ruach)’가 다시 사용되는데, 거기서는 사람과 짐승의 숨[루아흐]이 죽을 때 같은 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사람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에게도 닥치나니, 그들에게 닥치는 일은 하나뿐이라. 이쪽이 죽으면 저쪽도 죽고, 그들은 모두 한 숨[루아흐]을 가졌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라.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흠에서 나왔고, 다시 흠으로 돌아가느니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영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죽음에 관한 신약성경의 기록은 구약성경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이 잠에 비유되는, 의식이 없는 상태( )에 있음을 시사하신다. 요한복음 11장 1-46절에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의 병, 죽음, 그리고 깨어남에 관한 놀랍도록 계시를 주는 기록이 있다. 나사로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의 친구들이었는데, 그들의 형제가 병들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즉시 도움을 주러 오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분께 소식을 전했다.

예수께서는 친구 나사로의 병상 곁으로 즉시 가지지 않고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으나, 내가 가서 그를 잠에서 깨우리라.” 제자들은 이를 오해하여 예수께서 육체적인 잠을 말씀하시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죽었던 자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사로의 “영혼”이 행복의 천국에 있었거나 고통의 지옥에 있었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음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잠”을 믿으셨습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덤 너머의 삶에 대한 성경적 소망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멸성을 지녔다는 가정보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 사도 바울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2-18절에서 그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멸망한 것이 되리라”고 결론지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죽은 자들의 무의식적인 상태에 관해 동일한 일관된 사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의 저자는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13). 지옥에 관한 주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방금 인용한 본문에 따르면, 성경적 “지옥”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로 선언된다는 사실만 주목하면 충분합니다. 이는 그들이 살아 있지 않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죽은 자들의 소망이 지옥에서 나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약하자면,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들이 현재 무의식 상태에 있으며,

무덤 너머의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은 다가올 왕국 시대에 신성한 그리스도께서 행사하실 위대한 창조주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 “의인과 불의인을 막론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확신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4:15

## 사탄의 거짓말

이 주제의 이 단계를 떠나기 전에, 기독교와 비기독교 종교 모두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죽음은 없다”는 그릇된 이론의 기원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경이 죽음이 냉혹한 현실이며 인간의 최악의 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면, 죽음이 단지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는 의미에서 친구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죄와 죽음으로의 타락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뱀을 통해 활동하던 사탄( )은 죽음을 초래한 범죄가 일어나기 전, 어머니 이브와 이 문제를 논의하며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창세기 3:4).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대가가 죽음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17). 성경 전체의 증언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최초의 선언과 일치합니다. 바울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23). 에스겔은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합니다(18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2, 3절에서는 어머니 하와를 속였던 “옛 뱀”이 그 이후로도 계속 속이는 자로 남아 있다는 생각을 얻을 수 있으며, 역사는 이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대를 거치며 가능한 모든 기만적인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오늘날 미래의 존재를 믿으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불멸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믿음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불멸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다룬다.

## 제2장

### 인간은 불멸인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을 덮치면, 그 사람은 죽기 전보다 더 살아나게 된다는 내재적 불멸의 이론은, 인간의 유기체 어딘가에 “영혼”이라 불리는 파악하기 어렵고, 실체도 없으며, 보이지 않는 자아나 지성이 숨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신학자들의 주장은 이 영혼이 불멸하거나 죽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가 죽을 때, 이 내면의 지성, 즉 진정한 인간은 인간적 한계의 감옥에서 벗어나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서 영원히 삶을 누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악한 영혼이 아닌 한 말이다. 후자의 경우, 전통 신학에 따르면 그 영혼은 문자 그대로 불타는 지옥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며, 로마 가톨릭 신학에 따르면 기껏해야 천국의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 전에 연옥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야 한다.

“불멸의 영혼”과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표현은 종교적 대화에서 너무나 흔히 사용되기에, 이를 조사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를 성경적 용어라고

당연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표현들이 성경 어디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이들에게 큰 놀라움이 될 것이다. 인간 영혼의 전통적인 불멸성은 순전히 상상의 산물일 뿐이며,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영혼(soul)”과 그 복수형인 “영혼들(souls)”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500회 이상 사용되지만, 인간의 영혼이 불멸 하다는 생각이 암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영혼과 관련하여 죽음에 대해 논할 때마다, 영혼도 몸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지배를 받는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모든 영혼은 내 것이니, 아버지의 영혼과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4).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영혼과 몸을 지옥[게헨나]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그렇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가는 영혼들조차도 고문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한다.

구약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영(Young) 교수는 그의 저서 『성경 분석 콘코던스(Analytical Concordance of the Scriptures)』에서 이 단어 ‘네페쉬’가 단순히 “동물”을 의미하거나, 자유롭게 해석하면 생명이 있는 것, 즉 살아 있는 존재, 즉 지각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하등 동물과 관련하여도 사용됩니다. 민수기 31:28에서는 소, 나귀, 양과 같은 동물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가 불멸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등 동물들도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거의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결론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psuche”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10 을 인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여 히브리어 “nephesh”를 번역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의 이 인용문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그리스어 ‘프수케(*psuche*)’, 히브리어 ‘네페수(*nephesh*)’]을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며,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6:38에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말하는 예언적 선언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죽으셨고, 그 위대한 희생을 통해 온 인류의 영혼은 죽음에서 구속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어 “*psuche*”(영어 “soul”)가 흥미롭게 사용된 또 다른 예는 사도행전 3장 20-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아가 재림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 후 수행하실 회복, 즉 부활의 사역을 묘사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순종하지 않는) 모든 영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 모두 인간의 영혼은 필멸적이며 죽음에 종속되며,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영혼은 멸망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신조들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 했던 것처럼 보존되어 고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 창조된 최초의 인간 영혼

첫 번째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영혼이 실제로 무엇인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더라.”

여기서 영혼은 육체, 즉 유기체와 생명의 숨결이 결합된 결과물, 혹은 산물로서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사람이 살아 있는 영이 되었다.” 이 구절은 과거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에게 영혼을 주입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창조 과정에서 사람이 영혼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첫째, 기록에 따르면, 사람의 유기체, 즉 육체는 “땅의 흙”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과학적으로 일치하는데, 사람의 육체는 전적으로 땅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화학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이 유기체 안으로 “생명의 숨”, 즉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 모두에 필수적이다. 여기서 “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샤마(neshamah)*’이며, 영(Young) 교수에 따르면 이는 문자 그대로 “숨”을 의미합니다. 이 숨이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넣어졌다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숨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확실히 콧구멍은 불멸의 영혼이 자리 잡기에는 다소 특이한 장소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인간 유기체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결이 불어넣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간단히 말해, 그것은 살아나게 되었다. 즉, 본문에서 선언하듯이 “살아 있는 영혼”( )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영혼”은 실제로 유기체와

숨결의 생명 부여적 특성, 즉 “생명의 숨결”이 결합하여 생겨난 결과물이다. 이를 간단히 설명해주는 예가 전등이다. 내부에 진공과 필라멘트 등이 있는 전구라는 유기체는 빛이 아니며, 그 유기체를 통해 흐르는 전기도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구와 전기의 결합이 빛을 만들어 냅니다. 전구(유기체)를 파괴하거나 전류(생명의 숨에 해당)를 차단하면 빛은 꺼집니다. 즉, 빛은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육체가 손상되어, 생명의 숨결이 주는 생명 유지 총동에 반응할 만큼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영혼, 즉 생명은 “꺼진다.” 즉, 존재를 멈추고 죽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사나 질식처럼 어떤 이유에서든,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생명의 숨결이 몸에서 차단되면, 생명 또한 멈추고 영혼은 죽는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외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위대한 비밀은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분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등 동물들의 위대한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

태양이 자연의 빛에 해당하는 존재, 즉 근원입니다. 인간이 유기체를 만들어 그 안에 지구의 대기를 일부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공기는 인간과 하등 동물 모두에게 생명의 숨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의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원리가 지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 원리는 지성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이다. 창세기 7장 15절과 22절에서는 이 동일한 생명의 숨결이 하등 동물들에게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사를 계속해 나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인간들에게 미래의 영생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이유는, 창조주가 그들에게 생명 원리를 계속해서 부여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지, 원래 그들의 유기체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 **불멸에 대한 희망**

앞서 언급했듯이, “불멸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불멸의”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으며, 그 한 번의 경우에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적용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영원하시고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지혜의 하나님, 왕이시여,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가 있으시기를.” (디모데전서 1:17). 디모데전서 6:16에는 앞서 언급한 구절과 유사하게 “불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본문 또한 주님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을 가지시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권능이 있기를.” 이 두 성경 구절은 인간이 본성상 불멸의 피조물인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줍니다.

“불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네 번 더 사용되는데, 매번 이 단어는 이 생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미래의 조건부 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인간에게 미래의 삶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미래의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은 우리가 본성상 불멸하여 죽을 수 없다는 가정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활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는 잠시 미루고, 여기서 잠시 멈춰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불멸의 영광에 이르게 될 희망에 대해 언급한 네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구하는 자들[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생이 있으리라.” 이 본문은 불멸이 현재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꾸준히 행함”을 통해 추구해야 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불멸을 입어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불멸”이 소유해야 할 속성이 아니라, “입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우리가 현재 “죽을”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불멸을 입을 때에, ‘죽음이 승리로 삼켜졌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 “불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은 단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디모데후서 1:10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제 드러났으니, 그분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강림 이전에는 이 복음 시대의 교회가 권면받는 것처럼 불멸을 위해 노력할 기회조차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생명과 불멸에 대한 모든 소망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제3장

### 지옥은 어떠한가?

암흑 시대의 미신들로 인해 크게 왜곡된 기독교 신앙 교리 중 하나는 신의 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형벌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임을 보았다. (로마서 6:23).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의 정의를 의식 없는 상태, 즉 상징적으로 ‘잠’으로 묘사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사형 선고가 ‘영혼’, 즉 완전한 존재에 적용되며, 단순히 인간의 육체가 썩어 없어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성경에 명시된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들을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악인에 대한 영원한 고통의 교리에 대해 자연스럽게도 타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 명백한 난제에 대한 해답은, 영원한 고문 이론이 순전히 인간이 만든 교리일 뿐이며 성경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분명해집니다. 사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옥의 불”이라는 표현조차 성스러운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결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단지 죽은 자의 상태일 뿐이며, 우리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 상태는 무의식적인 상태입니다.

물론 누구나 알다시피, 성경의 모든 번역본은 구약의 히브리어 사본과 신약의 그리스어 사본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신의 목적과 계획에 관한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확실한 사실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지옥”으로 번역된 다양한 고대 단어들의 실제 의미에 대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즉시 놀라운 정보의 홍수를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지옥’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 하나뿐이며, 그 단어는 바로 “*셰올*(sheol)”입니다. 이 단어는 총 65회 등장합니다. 때로는 “무덤”, 때로는 “지옥”, 때로는 “구덩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교수인 제임스 스트롱 박사는 “셰올”을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정확한 상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면 성경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스올”은 전도서 9장 10절에 등장하며, 이곳에서는 “무덤”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인용하자면: “네 손이 할 일을 무엇이든지 힘써 하라. 네가 갈 무덤[스올]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히브리어 “스올”에 대한 영감 받은 정의입니다. 스올은 구약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죽은 자의 세계”가 지식도 의식도 없는, 고요하고 잠든 세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담의 창조부터 예수의 첫 번째 강림까지 4천 년 동안, 여호와께서는 죽은 자들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 외에는 다른 어떤 단어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영원한 고문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가장 무정하고 불공평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선한 선지자 욥은 ‘스올’이 잠과 같은 무의식 상태임을 알고 있었기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주님께 자신을 그 상태로 보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으로 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무덤[스올]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어 주시며, 정해진 때를 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스올”로 가고 싶어 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지옥이 그곳에 가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악랄하게 진노를 내리시는 곳이라는 교리적 이론과는 얼마나 다른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욥이 주님의 충실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성경에 나오는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성경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모든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죽은 자의 세계”는 선한 자와 악한 자, 성도와 죄인 모두가 죽을 때 들어가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영원한 죽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욥은 죽음 속에서 머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기도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스올”에서 그를 불러내어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느냐?”라고 묻고, 부활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며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리니, 주께서 친히 지으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욥기 14:13-15

구약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와 고통이 연관되어 언급된 것은 단 한 번뿐이며, 그것은 시편 116편 3절에 나옵니다. “죽음의 고통 이 나를 에워쌌고, 지옥[*sheol*]의 고통이 나를 붙잡았도다.” 이 구절의 화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때때로 유혹에 굴복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에 대한 마음의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3:22). 분명히, 그런 사람은 교리적 지옥의 고문을 겪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음부의 고통이 나를 붙잡았다”고 말할 때,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에서 다윗의 말의 의미는 문맥을 고려할 때 분명해집니다. 그는 죽을 만큼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언급한 “지옥의 고통”은 분명히 죽어가는 과정에 수반되는 고통과 고난, 즉 한때는 그 고통에서 건져났지만 결국 예언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병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지옥의 고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죽음의 상태,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인 “스올”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 신약성경의 지옥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스올(*sheol*)”을 번역하기 위해 그리스어 “하데스(*hades*)”가 사용된다. 이에 대한 흥미로운 예는 사도행전 2장 27절로,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하데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으로, 사도 베드로의 영감 받은 증언에 따르면( ), 선지자 다윗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에서 다윗은 히브리어 “스올”을 사용했고, 사도는 이를 번역할 때 그리스어 “하데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약성경의 ‘하데스’가 구약성경의 ‘스올’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도서 9:10에서 선지자가 ‘스올’을 무의식적인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신약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 시편 16편 10절의 다윗의 예언은, 예수님이 죽어 계셨던 기간 동안 그분을 성경의 지옥에 두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지옥은 중세 신학이 묘사해 온 그런 종류의 장소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고문의 장소로 가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지옥이 죽음의 상태나 상황임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에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세상의 죄를 위한 랜섬, 즉 상응하는 대가가 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을 맛보셨고, 따라서 죽음의 상태, 즉 성경적 지옥에 들어가셨다. - 이사야 53:3-10; 디모데전서 2:3-6; 히브리서 2:9

## 지옥에서 돌아오심

전통적인 신학이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처럼 성경의 지옥이 영원한 고문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로 돌아가 봅시다. 이 구절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하데스*( )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됩니다. 인용하자면: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하데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더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사망과 지옥[*하데스*]이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앞서 인용한 구절을 연구해 보면 세 가지 뚜렷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성경의 지옥은 악인이나 의인 모두를 위한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의 지옥은 불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여기서 지옥에 있었다고 언급된 자들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죽은 상태였으며, 중세 암흑기의 저주받은 자들이 겪는다고 알려진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고통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이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며, 여기서는 그곳이 거주자들이 완전히 사라진 장소나 상태로 묘사된 뒤, 상징적인 불못에서

불타거나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가장 파괴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여기서는 주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첫 조상의 범죄로 인해 초래된 죽음의 상태인 하데스가 마침내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거나 상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26

## 지옥의 열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지옥이 결국 그 안의 죽은 자들을 내놓아야 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나는 살아 계신 자요, 죽은 자였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 있도다. 아멘. 나는 지옥과 죽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열쇠는 문이나 문을 여는 데 사용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지옥과 죽음의 이 상징적인 열쇠를 얻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킬 신성한 권세를 가지게 되셨으며, “죽음과 지옥이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놓았다”고 선언하는 이 구절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실 신성한 권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9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려 함이라.” 죽은 자의 주님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공식적인 권위와 능력, 즉 “지옥의 열쇠”를 사용하여 세상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기록된 주님 자신의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부활하리라.”

“스울” 또는 *하데스에서* 죽은 자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이 사건에 이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명시된 대로 지옥이 멸망할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 새로운 생각이 아니었으니,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의 권세에서 그들을 랜섬하고, 죽음에서 그들을 구속하리라. 오, 죽음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스울]아, 내가 네 멸망이 되리라. 회개하는 것을

내 눈에서 감추리라.” (호세아 13:14). 이 구절에 담긴 복된 확신을 주목하라: “회개하는 것을 내 눈에서 감추리라.” 즉, 주님께서는 죽음과 지옥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으며, 이것이 타락한 인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위한 영광스러운 완성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

### 지옥에 있는 부자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와 같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리스어 ‘하데스(*hades*)’가 죽음 속의 무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의 장소를 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인용한다. 물론 이 비유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하데스’를 번역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신중하고 편견 없이 살펴보면, 선한 사람들은 죽으면 행복의 장소로 가고 악한 사람들은 고문의 장소로 보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이 비유를 일관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신약성경 『*엠파틱 디아글롯(Emphatic Diaglott)*』 번역서의 저자인 벤자민 윌슨 교수는 *하데스*가 고문의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비유에서 하데스가 사용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난처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유 전체가 삽입된 내용일 뿐, 실제로는 성서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각주를 달았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이 기록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 진술이 아니라 비유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진위를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 비유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본문을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볼 것을 권한다.

### 문자 그대로라면 이상하다

중세 신학에 따르면, 이 비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선한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이 생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악한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비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천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비유에 나오는 소위 덕스러운 사람에 대해 언급된 것은 그가 가난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 있었으며,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고, 개들이 그의 종기를 핥았다는 것뿐이다. 부자에 대해서는 단지 호화롭게 먹고 마시며 좋은 옷을 입었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문 앞에 누워 있게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만 전해진다.

또한 이 비유에 따르면, 병든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의 품에는 병든 거지 한 명 이상을 품을 자리가 없으므로, 다른 누구도 죽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의 상징으로, 거지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죽기 전에 온몸에 종기가 난 가난한 거지가 되는 것뿐이다. 그렇다, 심지어 개들이 우리의 종기를 핥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전통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비유에는 그 밖에도 많은 모순이 있다. 사실, 이 비유에는 기독교 신자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고, 불신자들은 고통의 장소로 간다는 이론과 하게 조화를 이루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고문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이야기에서 집어든 유일한 점은, 부자가 죽은 후 고통스러운 불길에 둘러싸였다고 묘사된 부분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이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뜻하셨을까?

우리는 이미 이 성경 구절을 비유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생각 속에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비유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주어진 강조점은 이 비유가 예수님 시대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의 경험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3:9; 요한복음 8:33, 39; 로마서 4:1).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드문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을 상징하는 “영클 샘(Uncle Sam)”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눈에는 왕족과 같은 민족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할 통로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 가진 이러한 왕족으로서의 지위는 비유 속에서 부자의 자줏빛 옷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와 성막 예배의 대속 제사를 통해 얻은 전형적인 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약속들 덕분에, 비유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매일 호화롭게 지냈다. 실로,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풍성한 축복들이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다. 바울은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울무와 덧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소서.” 로마서 11장 9절

이 비유에 나오는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당시 이방인들을 적절히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실로 가난한 자들이었다. 모든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참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이방인은 누구나 개종자가 되어 유대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특별한 배려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직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지위는 크게 바뀌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버림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누리던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잃었고, 민족으로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계속 살아남았으며, 그날부터 지금까지 박해의 불길은 거의 끊임없이 그들을 휩쓸었다.

그 거지 또한 죽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하는 백성이 아니게 되었으며,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쳤고, 믿는 자들은 모두 상징적으로 말해 아브라함의 품( )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진 약속들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복음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8). 복음 시대 내내 개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은 가능했으나, 신적 섭리는 이 문제를 관장하셔서 이방인들이 이 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상징하듯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라자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로 자신의 혀를 식혀 달라고, 즉 고통을 덜어 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거치며 유대인 민족은 한 번 이상 기독교를 통해 어느 정도의 구제를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긴 기간 동안 유대인과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이방인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골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어디에도 부자의 이러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은 유대 민족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으로서 신적 은혜의 옛 자리로 회복될 때가 바로 지금 도래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부자가 언급한 “다섯 형제” 역시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강림 500년 전,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 내린 칙령에 따라 민족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모든 지파에서 소수가 돌아왔지만 대부분 두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역대하 36:20-23; 에스라 2:1). 만약 이 한 부자가 두 지파를 상징한다면, 나머지 열 지파, 즉 주님의 첫 번째 강림 당시 메시아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한 대다수는 다섯 형제로 적절히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비유의 모든 세부 사항은 성경은 물론 역사적 사실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이 비유를 의인의 최종적인 상을 보여주기 위한 문자적인 진술로 생각하려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모순되고 터무니없는 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성경이 모순되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의 “스울”과 신약의 “*하데스*”는 지식이 없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 비유에서는 *하데스*에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민족적 죽음이며, 그 민족의

백성들은 계속 살아남아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 죽지 않는 구더기 - 꺼지지 않는 불

“스올(sheol)”은 구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유일한 단어이지만, 그 그리스어 대응어인 “하데스(hades)”는 신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유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예루살렘 바로 외곽에는 도시의 시체와 기타 쓰레기를 태우던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소각 작업에 유황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소독제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히브리어로 히놈 골짜기( )라고 불렸으며, 그리스인들은 이를 게헨나(Gehenna)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어 단어 *게헨나*는 신약성경에서 몇 차례 사용되며 종종 “지옥”으로 번역됩니다. 유대인들이 부활할 자격이 없다고 여긴 특정 범죄자들의 시체가 게헨나에 던져졌다고 전해지는데, 이에 예수님은 전적으로 고의적인 죄인들이 결국 가게 될 영원한 멸망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9장 43-48절에서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더 낫느니라. 거기서는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 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져,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그곳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또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네게 더 낫나니, 그곳은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니라.”

앞서 인용된 구절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모두 그리스어 ‘게헨나(Gehenna)’를 번역한 것이며, 따라서 이는 히놈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던 불의 파괴적 영향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고문이라기보다는 파괴에 가깝다. 심지어 ‘죽지 않는 구더기’에 대한 언급조차도 이 파괴의 그림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는데, 이

구더기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썩은 시체를 뒤덮는 바로 그 구더기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구절을 번역한 자들은 영원한 고문 이론을 믿었으며, 자신들의 미신을 뒷받침하는 듯한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구더기”는 이 본문에 불의 지옥에서 영원한 고문을 받는 것이 악인들의 운명임이 틀림없다고 일부를 설득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발휘한다면, 이 구절이 전혀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타는 대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불은 엄밀히 말해 꺼지지 않는 불이라 불립니다. 주변의 모든 가연성 물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타오르는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지만, 영원한 불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죄인들이 죄의 완전한 형벌, 즉 죽음이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즉 멸망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상징적인 불이 어떤 이유로든 멸망의 일을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존재하는 “벌레들”이 그 일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서는 여기서

멸망의 상징을 사용하셨으며, 이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일치된 증언을 다시금 입증해 줍니다. 로마서 6:23

이 성경 구절의 나머지 부분 또한 상징적입니다. 눈과 손, 발은 그 유용성 때문에 가장 높이 평가되며,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그것들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제안은, 우리가 영원한 존재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이 생에서 어떤 희생이라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구절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언약한 자들뿐이지만, 동일한 원리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생명을 위한 시험을 받고 있으며, 승리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 신성한 봉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사야 66장 24절은 천년 왕국 시대에 고의적인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유사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멸망의 상징을 현재 생명의

시험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인용문이다. “그들은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이니,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라.”

### 그들의 고통의 연기

요한계시록 14:10, 11은 때때로 고문 교리의 증거로 인용된다. 이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어졌음이라.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으로 쉬이 없으리라.”

만약 주님께서 앞서 언급한 구절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 진술로 의도하셨다면, 인류의 대다수는 이에 대해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왜냐하면 그 고통은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교도 지역 중 일부는 짐승을 숭배해 왔지만, 여기 묘사된 것과 같은 문자 그대로의 짐승—표범과 같고 곰의 발,

사자의 입을 가지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요한계시록 13:1,2)—을 숭배한 사람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것이다. 이 구절은 고문하는 일이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자적 관점에서 더욱 수수께끼처럼 보입니다. 이는 쉽게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늘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면,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찬 책이며, 이 구절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짐승”은 명백히 사람들의 숭배를 요구하는 거짓 종교-정치 체제를 가리키며, 상징적으로 제시된 생각은, 어린 양을 따르고 참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공언하면서도 대신 이 짐승에게 충성을 바치는 자들은 온갖 고난을 겪게 될 것이며, 이 시대가 마침내 끝날 때 닥칠 위대한 “환난의 때” 동안 모든 거짓 체제에 닥칠 고통을 함께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에는 그 고통이 사후에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연기”는, 참 하나님 외의 어떤 것이나 누군가를 숭배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상기시키는 증거나 기억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의 세부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이 구절은 결코 악인들의 영원한 고문을 주장하는 암흑기 이론을 입증하는 데 일관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사탄이 어떻게 고통받을 것인가

어떤 이들은 영원한 고문 교리를 “증명”하고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진술을 들어, 그것이 고문 이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인용하자면: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향 못에 던져졌으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으며,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문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불못”과 “지옥” 또는 *하데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을 보았는데, 후자가 전자에 던져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14). 사탄에게 닥친다고 하는 이 “고통”은 명백히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며, 지옥에서 구원받아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기록된 이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4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되는가?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둠의 시대 이론이

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고문”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스트롱 교수에 따르면 그리스어 “바사노스(*basanos*)”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가 제시한 문자적 의미는 “시금석”이다. 같은 단어는 베드로후서 2:8에서 “괴로워하다”로 번역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소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 의로운 롯의 영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롯의 경우, 그가 매일 비교를 통해 경건하지 않은 삶의 끔찍한 결과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한 생각이다.

마귀가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사야 14장 15-17절의 예언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너는 음부[쉬울]로, 구덩이가장자리로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유심히 살피며 생각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을 파괴하며, 자기의 포로[죽음의 포로]들의 집을 열지 않았던 자인가?’ 하리라.”

사탄의 멸망에 관한 이 예언을 요한계시록 저자가 그의 “고통”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비교해 보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로가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한 영원한 본보기가 될 것이며, 영원의 시대를 통해 구원받은 인류는 계속해서 그를 조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해 보인다. 마귀 자신이 자신이 받는 조롱을 의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본문의 의미상 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에서 지역 사회에서 미움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 계속 그에 대해 이야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를 쉬게 두자”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한다.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죽은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듯이, 사탄에게 쏟아질 영원한 치욕도 그가 마침내 불못에서 멸망당할 때에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쉬게 두지 않을 것이며, 악하고 이기적인 행로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계속 그를 내세울 것이다. 따라서, 악에 대한 신의 허락은 인류 가족 중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모든 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다수는 선을 선택할 것이다.

## 제4장

### 영과 영성주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사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느니라.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가서서 감금된 영들에게 선포하셨으니 곧 노아의 날에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여덟 명뿐이었느니라.” 베드로전서 3:18-20

주제별로 성경의 전체적인 증언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닫기 어렵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상태와 행방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여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한,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에서, 예수님은 지옥에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편 16:10; 사도행전 2:27-32).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그 순간 “낙원”으로 가셨다고 믿게 되었으며, 또한 본문의 표면적인 해석만으로는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설교하러 어딘가로 가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 논의에서 우리는 성경적 지옥이 죽음의 상태임을 배웠습니다. 즉, 구약의 “스올(*sheol*)”과 신약의 “하데스(*hades*)”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한 단어들입니다. (전도서 9:10).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랜섬, 즉 랜섬으로서 죽으심으로써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으므로, 그분은 필연적으로 이 죽음의 상태, 즉 성경적 지옥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고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선언했습니다(이사야 53:9). 우리는 성경의 이 근본적인 진리에 부합하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행적에 관해 성경이 전하는 다른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의식이 없으셨음을 보여주는 시점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었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설교하신 “영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오래 참으셨을 때 불순종했던 자들”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즉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설교하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에서 “영들”에 대해 더욱 명확한 정체를 밝혀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내쫓아 어둠의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한 여덟 번째 사람인 노아만 구원하셨으니, 그가 불경건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베드로후서 2:4,5, ) 베드로후서 2:4,5

앞서 인용한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영들”은 대홍수 당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특정 “천사” 집단이었습니다. 사도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존재들을 “천사들”이라고 지칭하며, 그들이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특별한 죄라고 설명합니다. 유다는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현재 갇혀 있다고 설명하며, 그들이 “어둠의 사슬”에 묶여 위대한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유다서 6

따라서 이 “감옥에 갇힌 영들”은 죽은 인간들의 “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천사적 차원에 속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는 항상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창조계가 우리에게 보이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형태의 “단세포” 생명체부터, 완전한 상태에서는 이 물질적 또는 지상 영역의 왕이었던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존재의 수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 이러한 다양성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높은 영역까지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지상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존재인 인간 위에는 영의 세계가 있으며, 이 영의

세계에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천사, 그룹 등 다양한 계급의 존재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에 대해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8:5).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육신이 되셨으며” 사람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더 높이” 높이 들리셨습니다. (에베소서 1:21). 이처럼 성경은 지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존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성경은 현재 거룩한 천사와 거룩하지 않은 천사가 모두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창조 당시에는 이 모든 영적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역할로 그분을 섬겼지만 말입니다. 창조주와 조화를 유지한 천사들에 대해 사도는 그들이 이제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자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4

또한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자기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느니라.”(히브리서 1:7).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천사 종들에 관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뵈고 있느니라.”- 마태복음 18:10

## 세상의 “천사”와 하늘의 “천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천사”라는 용어가 때때로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종” 또는 “사자”를 의미하며,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인간 사자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하늘의 사자, 즉 영적 사자를 가리키는지를 문맥을 통해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성경은 “천사”라고 불리는 영적 피조물들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이 영적 존재였다는 사실은 다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천사와 함께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는 선한 뜻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0-14). 마찬가지로, 마리아에게 그녀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린 것도 영적 존재였으며,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섬긴 것도 영적 존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면 자신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이 보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의 존재들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6-38; 22:43; 마태복음 26:53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천사들 모두가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께 충성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오래 참으셨을 때” 이미 “불순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20). 이러한 불충실한 자들은 통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로 불리게 되었다. 성경은 그들의 반역에 대한 형벌로 그들이 현재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거나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영들”은 어디에 있는가?**

앞서 인용한 본문에서 사도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영적( ) 감옥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본문을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내쫓아 어둠의 사슬에 매어 두어 심판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2:4)

방금 인용한 구절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하데스(hades)’나 ‘게헨나(Gehenna)’를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한 용어는 “타르타로(tartaroo)”이며, 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타르타로”는 그리스어 “타르타로스(tartarus)”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어두운 심연이나 감옥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본문에서 “지옥으로 내던지다”라는 전체 표현은 “타르타루”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이 단어는 장소보다는 행위에 더 가깝게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은 천사들의 타락은 영광과 존엄에서 불명예와 정죄로 떨어진 것이었으므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격하시키시며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천사들은 본래의 거룩한 상태에서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귀했다. 그들은 분명히 큰 자유를 누렸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지상 친구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아마도 지상과 창조주의 광대한 우주 다른 지역 사이를 자주 오갔을 것이다. 유다는 이 천사들이 “본래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였더라”는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이 천사들의 “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으로 현현하여 사람의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데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루는 역사적 기간 동안 여러 시기에 걸쳐, 성스러운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예언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지상으로 보내졌으며, 이러한 경우들 중 다수에서 그들은 육체화하여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한 사건이 그 예이다(창세기 18:1-22). 이러한 육화(물질화)는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리고 그에 참여하는 천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넘지 않았을 때 허용되었다. 대홍수 이전에 죄를 지은 천사들은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았으니”, 즉 인간으로서 인류와 계속 교제하기를 선호했다.

타락한 인류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타락시킨 그들에게, 쫓겨나가거나 비천해지는 형벌을 받고 동시에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적절한 일이었는가. 본문에서 “감옥”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담긴 의미는 자유의 구속입니다. 따라서 이 “영들”은 창조주와 온전한 교제와 조화를 이루던 시절에 누리던 정상적인 자유의 상당 부분을 박탈당한 채, 실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지구의 대기권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주로 인류와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가 많이 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복음서 기록에서 우리는 그분이 “마귀”나 “악령”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중에 사도들은 다른 영적 존재들( )을 위해

이와 유사한 사역을 행할 특권을 누렸습니다. 비록 고등 비평학자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렇게 다루었던 “빙의” 사례들이 단지 정신 이상이나 신경 장애에 불과했다고 증명하려 하지만, 이 “마귀들”에게 부여된 인격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명확하여 그러한 자유분방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사울 왕과 엔도르의 무당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는 이 타락한 천사들, 즉 “감옥에 갇힌 영들”의 제한된 활동에 대한 증거를 발견한다. 예를 들어 사울 왕과 엔도르의 무녀의 사례가 있다. 모세 율법은 모든 주술을 금지했으나, 이 고대 영매들은 사형에 처해질 위험을 무릅쓰고도 악랄한 행위를 계속했다. 오늘날 영매들이 죽은 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듯이, 엔도르의 무당 역시 분명히 비슷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울 왕이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잃고 적들에게 패배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죽은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 무당에게 사무엘과 연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 고대의 영매술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28장 7-20절에 나와 있다.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사울이 죽은 선지자 사무엘과 소통했다고 여겨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죽은 자들이 실제로는 전혀 죽지 않고 어딘가에서 살아 있으며, 특히 영매의 도움을 받아 특정 조건 하에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훌륭한 성경적 증거를 이 이야기에서 찾았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은 “죄의 샅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기만 수법을 사용해 왔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간략히 살펴보면, 현대의 영매술에도 거의 동일한 비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같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6:23

첫째, 사울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무당에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고,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사무엘이 살아 있을 때, 그는 주님의 충실한 종이자 선지자였으며 주님의 뜻에 거스르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사울이, 이 충실한 선지자로부터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무당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사무엘이 하늘이나 다른 곳에 살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지상에 있을 때보다 주님께 덜 순종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사악한 무당이 신의 뜻을 좌절시킬 힘을 가지고 있어, 사무엘을 불러낼 뿐만 아니라 이 반역적인 왕을 위로하기 위해 그에게서 메시지를 끌어냈다고 믿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기록은 성경에 사울의 생애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둔 것에 불과하며, 마녀가 사무엘을 보고 대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엔도르의 영매를 통해 악령들이 사용한 방법은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유사했다. 그들은 마녀의 정신적 시야 앞에, 평소처럼 긴 망토를 두른 노년의 예언자의 익숙한 모습을 지나가게 했다. 그녀가 그 정신적 또는 “아스트랄” 이미지를 묘사하자,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에 대한 묘사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러나 사울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단지 그 묘사를 통해 그것이 사무엘임을 “알아차렸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쉽게 설득된 사울은, 사울이 이제 영적 존재가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사울이 지상에 살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늙고 허리가 굽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았다. 사울은 또한 왜 사무엘이 영의 세계에서 그가 지상의 존재로 알았던 때와 똑같은 낡은 망토를 입고 있는지 묻지도 않았으며, 선지자의 망토와 흰 머리 등이 무덤에서 오래전에 썩어 없어졌을 것이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사울은 주님께 버림받은 상태였기에, 이제 예언자를 사칭하고 매체인 마녀를 통해 그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말하는 이 “거짓 영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

“왜 나를 깨워 불러냈느냐?” 그녀는 죽은 선지자가 묻는다고 전했다. 사울 왕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스울’에서 잠들어 있다고 믿었기에, “왜 나를 깨웠느냐”는 질문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죄받은 무녀가 선지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킬 능력이 있었다고

잠시라도 상상할 수 있겠는가? 혹은 현대 영매주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이 전혀 죽지 않고 영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녀가 그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대신 “땅에서 올라오게” 했다고 선언한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가?

현대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다가올 전투에서 사울이 패배하고 죽을 것이라는 “사무엘”의 예언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인용하자면: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며,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신실한 사무엘과 사랑받는 요나단이 사악한 사울 왕과 함께 영계에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것이 중세 시대의 신조적 신학과 잘 어울리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은 아니었으나, 이 모든 이들은 죽음 속에서, 즉 성경의 지옥인 “스올”에서 함께 있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 모든 이가 인자(人子)에 의해 불러내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울의 임박한 패배와 죽음을 정확히 예언하는 데는 그 무당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실

사울은 이미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무당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찰스 웨슬리는 엔도르의 “영매”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죽음 속에서 하나로 묶어 놓은 방식에 분명히 의아해 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엄숙한 말들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생명이 끝날 때 희망의 빛이?

너와 네 아들은 반드시

내일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리라:

지옥의 고통 속에 있지 않고,

사울이 사무엘 곁에 머문다면;

저주받은 절망 속이 아니라,

사랑하는 요나단이 그곳에 있다면.

사실, 물론 사울은 사무엘과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홍수 이후로 주로 인류를, 특히 죽은 자들의 상태에 관해 속이는 일을 해온 “감옥에 갇힌 영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무당, 마녀, 영매들에 대한 언급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영매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교제하려 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그러나 보아하니 이 영매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발현 방식을 바꾸는 것이 관례인 듯하다. 마치 한때 뉴잉글랜드와 오하이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성행했던 마법이 점차 사그라들고 영매주의로 대체되었듯이 말이다. 영매주의의 찢러대기나 두드림 같은 발현 방식 또한 점차 투시력과 물질화 시도로 자리를 내주고 있다. 주님과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러한 “영들”의 활동이 마법 방식에서 강령과 빙의의 방식으로 분명히 변화했었다.

### “영들”의 현대적 활동

한때 인간으로 현현할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남용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여전히 “영매”를 이용하거나, 강박 상태에서처럼 마음을 직접 조종하는 등 인간의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영들”이 점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가 이 외부의 지배에 동의해야 함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단 그들이 점령하게 되면, 의지가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지는 듯하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은 당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토록 높이 평가받았던 것이다.

이 타락한 천사적 존재들은 때때로 인간과 접촉하고 속이는 방식을 바꿀지 모르나, 그들의 영향력은 대체로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한다. 현대에는 죽은 자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소란이 일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통제된 경우를 포함해 수천 번에 달하는 시도 끝에 도대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물론, 엔도르의 무당(사울에게 속임수를 쓴)과 같은 터무니없는 “신원 확인”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죽은 친구나 친척과 접촉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지만,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영매주의적 경로를 통해 가치 있는 정보가 얻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언급한 이 “영들”이 누구인지 파악했으니,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설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스울”이나 *하데스에*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겉보기에는 난해한 문제를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서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어 학자들은 “가서 전도하셨다”는 표현이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단어는 본문에 불필요한 한 추가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종류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오늘날에도 가끔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벤자민 월슨 박사는 그의 『엠포틱 디아글롯(Emphatic Diaglott)』에서 이 성경 구절을 “그분은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설교하셨다”라고 번역하며, 본문의 올바른 이해에 불필요한 표현인 “가서”라는 두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이 본문의 각주에서 그는 다른 권위자들도 이 점에 있어 자신과의 의견을 같이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두 불필요한 단어를 제외하면, 본문 전체는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 하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도 전도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18, 19).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설교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영들”이 반역했던 하늘의 아버지이자 창조주에 대한 그분의 신실함을 통해 가르쳐진 실례였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한 이 영적 존재들 중 첫 번째였으며, 그는 후에 반역자들의 대열에 합류한 자들에게 명백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은 사탄과 이 다른 타락한 영적 존재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루시퍼의 타락을 초래한 것은 야망과 교만의 영이었습니다(이사야 14:14); 그리고 분명히 그와 같은 영이 이 하급 타락 천사들의 무리에도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실함, 즉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게 한 그 신실함은 이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 “영들”이 예수님께서 그 신실함으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우편에 높이 올리우신

반면, 자신들은 불충실함으로 인해 타락하고 비천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설교의 힘은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은 자들의 상태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 “죄의 샅은 사망”이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그 위대한 근본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전도서 9:5

## 제5장

### 천국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그분께서 풍성한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하늘에 예비된 썩지 않고 더러움이 없으며 시들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 베드로전서 1:3,4

죄인과 성도 모두에게 무덤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성경적인 이해를 얻으려면, 영감 받은 기록이 천국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상에 살도록 창조하셨고, 지구는 사람의 거처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사실은 분명하다. 사람은 죄로 인해 지상의 통치권을 상실하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나, 구속주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지상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한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이 일반적인 부활의 예외는,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하늘의 상을 받게 될 주님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성경은 천국과 천상의 소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2,3

이것은 지상의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화함을 분명히 암시하는 매우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에는 많은 오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많은 집” 중 하나를 소유하리라는 희망을 들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것들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러 떠나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당시에는 이미 많은 “집”이 존재했으나, 제자들을 위해 새로운 장소, 즉 새로운 상태가 마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거처”라는 표현은 단순히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처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구 그 자체와, 우리의 첫 조상에게서 나타난 완전한 인간 삶의 상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거처”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거처는 죄로 인해 상실되었으나,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의 존재 차원은 다양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언급하신 수많은 “거처”에 적절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영적 영역에 얼마나 많은 차원이나 생명 계층이 존재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존재하는 생명의 엄청난 다양성을 미루어 볼 때, 분명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었고, 또 다른 존재의 차원이 준비되어 교회를 위해 마련될 것이었으니,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곧 그가 부활하실 때 승천하신 그 장소였습니다.

### **교회의 미래 위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주님의 충실한 추종자들의 미래 상태가 주님께서 높이 들리신 곳, 즉

그와 같은 지위나 상태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높임에 관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9, 10

실제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높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2). 그리고 이 똑같이 지극히 높임받은 지위가 교회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21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을 주목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이는 나도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음과 같으니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생기 있는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 썩지 않고 더러움이 없으며 시들지 않는 유업을 얻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에 예비되어 너희를 위하여 간직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도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심을 받았으니,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5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교리 신학이 가르치는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 교회를 위해 예비된 그 하늘의 유산이 각 기독교인이 죽는 순간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세상의 끝 때에 주어질 상급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실 “자리”에 관해 하신 약속과 일치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하실 때까지 어떤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희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7,8). 아, 그렇습니다. 사도는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자신의 하늘의 상이,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로 데려가기 위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바울의 간절한 소망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이 잘못 번역됨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사도가 죽자마자 즉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두 가지 소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데, 그것이 내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다(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anulusai*”에서 유래한 것으로, 명백히 “돌아감”으로 번역되어야 했으며, 윌슨(Wilson) 교수도 그의 『*Emphatic Diaglott*』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선 구절들에서 사도는 자신이 곧 처형될지, 아니면 로마 당국에 의해 석방되어 당분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훨씬 더 선호했던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는데, 바로 “*anulusai*”였습니다. 그가 이를 선호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는 단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이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윌슨 교수는 자신의 『엠포틱 디아글롯』에서 이 본문에 대한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아날루사이(anulusai)*’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등장하며, 여기서는 ‘돌아오심’으로 번역되었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라’ 등.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오시거나 돌아오실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 바울은 이 교리를 믿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하늘에서 오실 구세주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죽는 순간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조금 더 오래 살아 진리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죽음 속에서 잠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먼 미래의 일임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상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비로소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디모데후서 4:7,8

### “우리의 지상 집”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즉시 천국으로 간다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장막 같은 땅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질 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생명이 예수님에 의해 약속된 것임을 알았지만, 그가 죽는 순간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그는 “이는 우리가 벗어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입으려 함이라.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고 이어 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55절에서 그는 교회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즉 부활할 때까지 불멸의 몸을 입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시점으로 설정하며,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과 일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이 현세적 삶을 무덤 너머의 부활한 삶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현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주님의 뜻을 충실히 행함으로써 주님과 가까워지는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불충실함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곁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항상 주님과 가까움을 느낄 수 있든, 때로는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아 주님의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힘써야 합니다.

### “그들의 행실이 그들을 따르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시대 말기의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 적용되는 귀중한 약속이며, 복음 시대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진술로 적절히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에서 쉬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느니라.”

“이때부터”라는 표현은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이며, 이 약속이 정해진 시점 이후에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문맥을 보면, 여기서 암시하는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인 시대의 말미이며, “수확”이라 불리는 기간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실한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칠 때, 죽음 속에서 잠들어 있을

필요가 없이 즉시 부활하여 새 왕국 수립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서 이를 암시합니다: 사도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언급하려는 내용이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임을 시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들지는 아니하되,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죽어야 합니다—“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며, “모든” 이가 불멸을 입기 위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음 속에서 “잠든” 상태로 머물 필요가 없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며 고된 수고를 하다가 죽음으로 인해 그 일을 멈추게 되지만, 즉시 부활하여 주님을 위한 일을 계속해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멸에서 불멸로의 즉각적인 변화조차도 그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활이 죽음의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전에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에게는 하늘에 관한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주님 자신도 그 때까지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13).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 신실한 조상 다윗에 대해 말하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4

많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에녹의 ‘데려감’은 그가 죽음을 동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직접 겪지 않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괴로운 경험을 하기 전에,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된 것에 불과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도록” 데려가신 것이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을 과거의 신실한 자들 가운데 포함시키며, 그들에 대해 “이들은 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히브리서 11:5, 13).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도 발견되는데, 거기서는 라헬의 죽은 자녀들의 상태를 묘사하며 그들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승천에 대해 다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지라도, 그가 천국으로 가지 않았다는 증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 엘리야와 병거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불타는 병거는 단지 엘리야와 엘리사를 분리시켰을 뿐이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한 것은 회오리바람이었다. (열왕기하 2:11). 이와 관련하여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의 다사다난했던 생을

마감하게 한 회오리바람에 의해 올라간 곳은 분명히 바로 이 “하늘”이었다. 창세기 1:8, 9, 14, 15, 17, 20; 7:11, 23; 스가랴 2:6

변모의 환상 속에서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는 사실은, 이 두 선지자가 당시 하늘 어딘가에서 실제로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모산에서 내려오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환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9).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수건에 담겨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았으나, 그것들은 실제 짐승들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모스 섬에 있던 요한은 두 시대의 거대한 역사적 파노라마 속에서 온갖 유무생물이 그 앞에 나타나는 일련의 환상을 보았으나, 그가 본 것 중 그 어떤 것도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으나, 그 두 선지자는 이미 죽어 잠들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하며, 부활할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35, 39, 40

이 변모의 환상은 그리스도가 지상을 다스리기 위해 세워질 때의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으로 높이 들려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 이 통치의 목적은 지상에서 인류 전체에게 건강과 생명을 베풀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낙원이 회복될 것입니다.

## 제6장

###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낙원”과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하며, 보통 이 두 용어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과는 거리가 먼 영적 행복의 상태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자마자 바로 그곳으로 간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낙원과 천국을 구분하며, 전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일종의 중간 상태이며, 그곳에서 미래의 심판의 날까지 머물다가, 그날에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의 천국으로 옮겨지거나, 마찬가지로 끝이 없는 고문의 지옥으로 옮겨진다고 주장한다.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 보면, 앞서 언급한 견해들은 잘못된 것이며, 이러한 오해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원초적인 거짓말을 강화하려는 대속임수의 또 다른 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와 같이 죽은 자는 죽은 자라면, 죽은 자들이 낙원이나 천국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낙원(paradise)”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정원이나 공원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해 인간이 쫓겨난 에덴 동산에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에스겔 36장 34절과 35절에서 선지자는 에덴 동산의 상태가 땅에 회복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과 21절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일치된 선언이기도 하다. 여기서 베드로는 지상의 낙원이 회복될 시기를 “만물의 회복의 때”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회복”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올 것임이 드러납니다.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 할 때까지, 곧 만물의 회복의 때가 올 때까지.” 그러므로 낙원이 이 땅 위에서 전 세계적인 행복과 완전함의 상태가 될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현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낙원에 있는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강도의 “주여, 주께서 왕국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간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23:42). 우리는 그 강도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런 종류의 청을 하기 위해 그에 대해 많이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걸린 간판은 그가 왕임을 주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거나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처지에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강도는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이 소위 범죄자 왕에게 어느 정도 존경과 인정을 표하는 것이 해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순한 소망에서 비롯된, 즉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간청을 담은 이 도둑의 친근한 제스처를 예수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생생하고 빛나는 약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도둑의 간청이 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하신 뜻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의 간청은 신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며, 내 왕국이 있을 것이며, 그 왕국에서 너는 기억될 것이다.” “너는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이 약속을 하셨을 당시, 그분의 왕국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10). 이 영감 받은 기도는 메시아 왕국이 당시 현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발견한 생각, 즉 그 왕국이 올 때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 줍니다.

따라서 그 강도는 지상의 축복을 구했고, 예수님의 대답은 지상의 축복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통치 아래 회복된 낙원의 이러한 지상 축복들은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때 온 인류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친절한 강도뿐만 아니라 무덤에 있는 모든 이들은 약속된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인자의 음성에 의해 깨어날 지상의 새 날의 아침이 올 때까지 죽음의 잠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28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도둑에게 하신 약속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셨을까요? 이 구절을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일반적인 증언과 조화시키는 데 겉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부 성경 번역본에서 쉼표가 잘못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본인 영감받은 기록물에는 쉼표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쉼표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두점은 비교적 근대에 등장한 것으로, 불과 수백 년 전이야 문헌에 도입되었다.

거의 모든 종교계가 그러하듯, 성경 번역가들도 죽음의 순간이 천상의 행복으로 옮겨지는 순간이라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신학적 교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 구절에 쉼표를 삽입했다. 이 쉼표의 위치를 바꾸기만 해도 본문에서 올바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스승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대해 품고 계셨던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오늘”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분이 왕국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날이었다. 그러나 스승의 믿음은 너무나 컸기에, 모든 자연적 상황이 그분의 희망을 부정하는 시기에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도둑에게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올 것임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확신시켜 주실 수 있었다. 즉, 낙원이 회복될 것이며, 그도 그곳에 있어 그 축복을 누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이다.

### **낙원으로 끌려 올라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간” 환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설명하듯이, 이것은 “환상”이었으며, 결코 낙원이 당시 실제로 존재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이 같은 환상 속에서 자신이 “제삼의 하늘”로도 끌려 올라갔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에게 그 환상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 3장에서 바울이 환상 중에 본 이 “세 번째 하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단순히 “세 번째” 하늘뿐만 아니라 세 “하늘” 모두를 언급합니다. 그는 이 하늘들 중 첫 번째 하늘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으나, 대홍수 때 멸망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늘은 대홍수 때 생겨났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멸망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사도는 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이 “새 하늘”은 바로 “세 번째” 하늘일 것이다. 베드로는 또한 “새 땅”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바울이 자신의 환상에서 “낙원”이라고 묘사한 곳이 바로 이 “새 땅”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새 하늘, 즉 “세 번째” 하늘과 새 땅, 즉 “낙원”이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창조되거나 생겨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전 연구 결과, 즉 낙원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도 죽는 순간에 낙원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 “낙원” 땅에서의 축복

베드로는 우리가 “그의 약속에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분명히 암시하는 “약속”은 이사야 65장 17-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사실 중 하나는,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새 땅”의 창조와 함께 “기쁨”이 오고, “울음”이 그치며, 그곳에서는 더 이상 “갓난아기”가 죽지 않을 것이며, 집을 짓는 자들이 “거기에 거주할” 것이므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될 것이며,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고, 고통을 낳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내 거룩한 산[왕국]에서는 해치거나 멸망시키는 자가 없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포괄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왕국의 약속 중 하나인데, 여기서 “산”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2장 35절, 44절, 45절에 묘사된 산으로, 자라나 온 땅을 채울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기억될 왕국이며, 전 세계에 낙원의 상태를 회복시킬

왕국입니다. 이 예언의 어느 부분도 이것이 천상의 축복에 대한 약속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상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서도 동일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언급되며, 이들이 세워진 후에 따를 것으로 약속된 축복 또한 동일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광범위한 축복입니까! 다음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의 저자 모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과 연관 짓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교회를 이 하늘의 예루살렘 계급으로 규정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리며, 요한계시록 21장 9, 10절에서 우리는 이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마침내 세워질 때, 교회 계층은 이미 완성되어 이 새로운 왕국 질서 안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공동 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당시 제공될 생명 샘으로 와서 듣는 모든 이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복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우리 주 예수]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 원하는 자는 누구나 생명수를 무료로 취하라.” (요한계시록 22:17).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때 제공될 생명의 축복이 새 왕국의 통치 규율, 즉 “보좌”의 관할을 받게 될 것이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구속 사역 덕분에 이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무료로 주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아름답고 통합된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22:1

물론 “하늘”과 “땅” 또한 상징적인 표현이며, 성경은 이들이 새 왕국의 두 단계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예수님과 영광 중에 계신 교회로 구성된 하늘의 단계로, 이들은 왕국 안에서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로 부활한 옛 선지자들과 과거의 다른 의로운 자들로 구성된 땅의 단계로, 이들은 “온 땅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45:16

예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과연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완전한 인간 생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한 “정치가들”, 즉 신성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들이 인류 세계와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왕국이 될 것이며, 그 왕국이 세워질 때 신음하는 온 피조물에게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 결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와 지탱이 되어 주는 희망입니다.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왕국에서 공동 상속자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 주어질 것이며,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 법을 따르고 “생명의 물을 거저” 받아들이는 나머지 모든 인류에게는 지상 낙원에서 회복된 인간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 왕국의 축복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에 응답하여, 이 신성한 왕국이 죄로 병든 세상에

가져다줄 축복의 시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참으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과거에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의 변화는 뚜렷하고 두드러졌으나, 이번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탁월하고 사건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통치권이 사탄의 죽음의 통치에서 메시아의 생명의 통치로, 거짓 신들에 대한 미신적 숭배에서 참 하나님 여호와와 그분의 아들, 세상의 구속자이자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적인 숭배로 옮겨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러한 변화를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것처럼 광범위한 변화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믿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아들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는가! 온 인류가 입술과 마음에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읊조리며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이야, 그렇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라.” 이사야 35:10

지금은 슬픔과 탄식이 우리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 그리고 죽음은 세상 모든 슬픔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인류의 이러한 “적들”은 메시아의 왕국 권능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긴 밤 동안 자루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며 울부짖는 일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제 곧 밝아올 천년 왕국의 새벽에 신음하는 피조물을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닦아질 것이며, 재 대신 아름다움이 주어지고, 무거운 영 대신 기쁨의 기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9절에서 선지자는 전 세계에 낙원의 상태가 회복될 새 왕국에 대한 예언적 묘사를 제시하며, 이 예언의 일부는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가운데 죽음을 삼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인용하며, 교회가 주님과 함께 불멸의 상태로 승천한 후에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왕국의 축복에 관한 최초의 약속 중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16절, 그리고 27-29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 즉 이 시대의 그분을 충실히 따르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 생명과 행복의 낙원적 조건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하늘의 고향을 함께 누리고 세상에 생명의 축복을 베푸는 데 있어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왕국 내에서의 높은 지위를 위해 선발되고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시는 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보여줍니다. 이는 세상의 황금기인 축복의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곧 눈물의 어두운 밤이 노래하는 아침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이 더 이상 일상적인 일이 아니게 되고, 그 대신 한때 사랑했으나 죽음으로 잠시 잃어버렸던 친구와 친척들의 행복한 재회가 찾아올 때, 그 얼마나 기쁜 때가 될까요? 그때

신성한 왕국의 법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원한 재회가 될 것이며, 순종을 통해 그들은 신성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신부께서 베푸시는 전능하고 축복받은 왕국의 중재력을 통해 회복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17

구원받은 인류의 어떤 피조물도, 왕국의 전능하고 복된 도구를 통해 닿는 신성한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비천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죄로 인한 타락이 아무리 깊어도 자비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은 없으며, 피로 사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만큼 깊은 곳은 없습니다. 무지와 미신의 어둠이 어떤 마음속에서 아무리 짙어도, 신성한 진리와 사랑의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 새로운 날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며, 순종을 통해 그 축복을 함께 누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육체를 공격하고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질병도 위대한 의사의 즉각적인 치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어떤 기형이나 정신 질환도 그의 치유의 손길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왕국의 법에 대한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인 화해와

구원을 의미한다고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무조건적인 구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23절에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인이 그 축복을 받는 것은 “그 선지자”, 곧 신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영혼은 백성 중에서 멸망할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무지한 상태에서 구원받거나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성경은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묘사된 멸망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 믿고 순종할 충분한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아무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의 잠에 빠져 있는 모든 이에게 깨어남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남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된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한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수한 진리의 메시지가 온 땅을 덮게 될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혹은 얼마나 적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지에 대해 우리가 추측할 일은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판단할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오늘날 세상이 위대한 미혹자 사탄의 기만적인 영향력에 의해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그분을 믿을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수많은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 절망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양쪽 모두 혼란과 의심의 구렁이에 빠지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던 그 왕국 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인류의 대적자 사탄은 결박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2). 선지자는 메시아의 등장을 해가 떠오르는 것에 비유하며, 지상의 새 왕을 “의의 태양”이라 칭합니다. 이 태양은 건강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떠오르며, 어둠과 미신의 안개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참된 복음으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2

그때가 바로 모든 사람이 메시아 왕국의 질서 안에서 구현될 신성한 의의 원칙에 대한 충성을 입증할 진정한 기회를 갖게 되는 때이며, 회복된 지상의 낙원에서 영원히 거주할 특권을 누리게 될 때이다. 성경에 따르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사도행전 3:23

그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하는 권세와 능력을 제압하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며 모든 혀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공의와 사랑과 능력을 고백하게 할 때까지,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